

문화특가

김제시, 신규 맞춤형 급여자 발굴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 신규수급자 발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작년 7월부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 맞춤형급여로 개편된 상태이다.

도입당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수급자 수가 3,942세대에서 4,425세대로 증가하였으나, 집중신청기간 종료 이후 4,357세대로 감소 추세에 있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이 함께 모두 발로 뛰는

김제시는 우선 읍·면·동 지역에서 각종 차상위 계층에 대한 맞춤형 급여 안내문 발송 및 이·통장 회의를 통한 홍보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0원인 세대 중 수급자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와 1대 1 상담을 통하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병행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초중고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동안 해당자에 한해 교육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에 홍보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삼락농정' 설명회 개최

전북도 핵심 농업정책인 '삼락농정' 설명회가 지난 7일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노점 흥 부안군 부군수, 농업인 농·축·수협 관계자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는 '보람 찾는 농민 재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의 삼락농정 추진전략과 글로벌 농생명 산업의 주요 농정사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박진주 전북도 농업정책과장이 도정 최우선 과제인 삼락농정의 2015년 추진성과 및 2016년도 핵심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여성 농업인 생생 바우처 등 6대 핵심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군은 전북도의 6대 핵심전략인 여성농업인 생생 바우처, 농민기 공동급식 지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범사업, ICT 융복합 농축수산업 육성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 생생마을 만들기 등을 바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산동,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김제시 김산동(동장 강신호)은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2016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교육비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는 신청기간에 '교육비 원클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세대 등 법정저소득수급자도 교육비 신청을 하여야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2015년도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초·중·고교 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을 1년간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02-488-7114)에 제출하면 된다.

정읍시민 모두 자전거보험 가입

내년 3월 7일까지 적용...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최고 500만원까지

정읍시가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이달 8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이다.

이 기간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게 되는데,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는 최고 500만원까지, 자전거 상해로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의 위로금(7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 위로금 추가 지급)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

여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천만원까지, 자전거사고 변호사 비용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3천만원까지,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는 1천5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보험금 지급 대상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이거나,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02-488-7114)에 제출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북도 내 최초로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시행했고, 2010년 50명, 2011년 84명, 2012년 99명, 2013년 85명, 2014년 97명, 2015년 89명이 보험금을 지급 받아 6년간 모두 498명이 10억 7천7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한편 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 보험 가입 외에도 자전거 안전도 구입비 지원(600만원), 범시민 자전거타기 캠페인(900만원), 자전거타기 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1천만원), 정읍 관공유적지 자전거하이킹순례단 운영(400만원), 자전거도로 시설 정비(5천만원)사업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큰 '호응'

현재 123명에 토지정보 제공

김제시(시장 이진식)에서는 추진중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하는 제도로 2011년 도입됐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되고 이용수수료는 없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2002년부터 시행된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해 747명의 신청을 받아 1,448필지, 1,372천㎡의 토지가 확인되었다.

올 3월 현재 신청인원 123명에 256필지, 195천㎡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상속자 등에게 상속자의 재산유무를 확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상속권자가 읍면동에서 사망 신고시 조상땅 찾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상땅 찾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권자가 전국 시·군·구 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시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또한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포함한 금융거래, 자동차소유, 국제,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 등을 통합해 신청할 수 있어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내년 농림축산사업 62개 확정

1774억원 투입

정읍시는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62개 사업 1천774억원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 4일 28명의 심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열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발식량작물산업 육성사업, 농지규모화사업,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등 분야별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자율사업은 농지규모화 사업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산림소득증대사업 등 48개 사업 1천310억원이고, 공공사업은 농작물 병해충방제사업과 송이재 생산안정사업, 조립금 가꾸기사업 등 5개 사업 61억원이다.

또한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및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 등 9개 사업 총 403억원이다.

이날 심의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37일간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사업신청을 접수한 것이다.

시는 이날 의결된 사업은 전북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2017년도 예산으로 신청을 할 계획이다.

김생기 시장은 "신청된 모든 사업이 내년도에 한 건도 누락되지 않고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정읍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가는 물론 농산물 수입개방과 기후변화 등의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의 농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전북공동모금회로부터 도내 1위 모금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함한 모두 5억1천200만원을 배분받았다.

정읍시, 이웃돕기 온정 '활활'

도내 최고 많은 금액모아 1위 성과 올려

정읍시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전북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지난 1월 말까지 70일간 진행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시에 따르면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입니다'란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지역 내 기관 단체와 기업체, 개인 등 모두 1천 명이 참여해 당초 목표액인 3억 7천 700만원을 훨씬 넘는 5억 200만 원이 모금됐다.

이는 전북도 내에서는 최고 많은 금액으로 1위의 성과이다.

김생기 시장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린이집 원아부터 지역의 기업과

단체, 이름 없는 많은 분들까지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고마운 뜻을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일 전북공동모금회로부터 도내 1위 모금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함한 모두 5억1천200만 원을 배분받았다.

시는 이를 사회복지시설 15개소에 29억원을 전달하고 3억1천200만원은 복지사각지대 및 소외계층 긴급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연중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이 꼭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도움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GIFT SET 4.0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0 | 375ml 5ea/13%

GIFT SET 6.0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0 | 375ml 2ea/13%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찰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껏 솔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매가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국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 강산 뽕주
Premium Obli Wine

TEL : 063-584-9860
www.gangsanwine.com